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성령강림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 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성령이 오셨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따스한 성령님

기도인도

인도자

봉 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사도행전 2:1-13

다같이

말씀선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성령이 오셨네

다같이

축 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부터 신청하는 분을 중심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3. 큐티책 6월호가 나왔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5. 새벽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해서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롱아일랜드의 건축현장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의 예배당 건축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멈추어 있던 건축현장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원래 이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이 말 뜻은 50번째 날이란 의미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칠칠절이라고 하며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의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하신 후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며, 제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을 이 날을 기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강림절 후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골방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도록 가능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암울하고 희망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울림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3,792